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2.01.146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02

시론

건축가의 채움과 비움

03

종합

사랑에서 _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건축계 단신

04-05

광주 지역 뉴스

광주건축사회, 광주광역시 남구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 전달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 비롯 지역건축단체장, 이용섭 광주시장과 간담회 가져
광주건축사회, 2022년 시무식 개최 및 장학금 전달식 진행



06-07

전남 지역 뉴스

전남건축사회, 업무협약기관 통해 드론 조종자 국가자격취득과정 교육 진행
여수지역건축사회, 여수시에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 기탁
전라남도,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현장점검

08-09

전북 지역 뉴스

전북건축사회, 건축인재 육성 위한 장학금 300만 원 전달
전주지역건축사회,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 상당 물품 기탁
전북대, '2021년도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료식 및 전시회 개최

10-11

제2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금상(사용승인 공공/일반 분야) 수상작

12

독자광장

책 소개 _ '에이트'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세상사는 느낌 _ 삶 속에서 나만의 재미를 찾다
신년 휘호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건축가의 채움과 비움



이순미 논설위원

(주)건축사사무소 미가온 대표
migaon@hanmail.net

[경력]

- (사)대한건축사협회 정회원
-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 지회 수석부회장
- 한국도시설계학회 정회원
- (사)장애없는세상만들기 상임이사
- (사)도시연구소 시중 연구소장
- (사)푸른길 이사
- (사)한국여성건축사회 정회원
- 건축문화사랑 신문 편집위원
- 전라남도 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 전라남도 공공건축가
- 전남대학교 건축학부 겸임교수 역임
- 순천대학교 건축학과 외래교수 역임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위원 역임

[수상]

- 광주광역시 건축상 4회 수상
- 제2회 대한민국 경관 대상 (국토부장관상) 수상
- 제8회 대한민국 공간문화 대상 (대통령상) 수상
- 광주광역시 장애인 인권상 수상

[작품]

- 광주양지초등학교 신축
- 진도 신비의 바닷길 체험관 신축
- 여수 장애인 종합복지관 신축
- 국립 광주 518 기록관 리모델링
- 강진만 생태홍보관 신축 등 다수

우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팬데믹 시대의 두 번째 해를 보내고 세 번째 해를 맞이하고 있다. 처음 COVID-19가 발생하였을 때, 전문가들은 최소 2년에서 5년은 갈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 예상이 들어맞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

유행병이 무서운 것은 예견할 수 없는 죽음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건강하게 일상을 소화하던 사람들이 감염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위독한 지경에 이르고, 또 가족과의 마지막 이별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내몰리기 때문이다.

필자는 대학과 건축사보 시절에 연이어서 두 분의 유명한 건축가의 죽음으로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있다. 두 분 모두 대한민국 현대 건축의 1세대로서 수많은 작품을 남기며 건축계에 많은 영향을 주셨던 분들이다. 김수근 선생님은 1986년 50대 중반의 나이로 돌아가셨고, 1988년에는 60대 중반의 김중업 선생님마저 돌아가셨다. 이 두 분의 죽음을 보면서 나는 “건축가들은 왜 단명(短命)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었다. 건축가는 정년퇴직이 없는 직업으로 본인의 실력과 건강만 갖춰진다면 백세에도 일을 할 수가 있다. 유능한 건축가가 장수할수록 사회에 기여하는 바도 한층 더 커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가는 장수 직종이 아니라 오히려 단명 직종에 속한다. 왜 그럴까. 필자는 건축가의 업무가 타 직업에 비해 과중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나라의 건축사들은 나 홀로 설계사무소를 운영하거나 소수의 직원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다 보니 건축사는 대표, 실장, 사원의 올라운드 플레이어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대외영업 및 회계, 경리 업무까지 소화하면서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요즘과 같이 직원을 구하기 힘든 상황에서 더욱 어려움이 커진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워커홀릭(workaholic)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건축가라는 직업은 타 직종에 비해 정년퇴직이 없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본인이 건강하게 오래 생존할 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과도한 업무 속에서 건강을 지키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 이 문제의 답을 잠시나마 생각해 보자.

건축물을 디자인 할 때 유념해야 할 키워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의 두 가지는 ‘채움’과 ‘비움’이다. 좋은 건축물이란 채움과 비움이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물을 설계할 때 매스로 꽉 채우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매스와 매스 사이에 사이공간을 만들어서 작은 틈이라도 확보하려고 고민을 한다. 사이공간은 빛과 바람길을 만들어 환기와 채광을 제공해 줌으로써 건강한 삶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마치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시냅스처럼 작동함으로써 건축 공간을 창의적인 공간,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완성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사이공간의 원리를 건축가의 삶에 적용시켜 보자. 건축가

의 삶이 과도한 업무로만 점철되어 버린다면 결국 우리를 지탱하던 생명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몸을 지키기 위해 좋은 음식과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하듯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이공간 같은 휴식과 쉼이 필요하다.

팬데믹 시대를 겪는 직업인으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의료진들의 번아웃(burnout)이다. 의료진들도 사람인 만큼 그들에게 책임감을 강요할 수는 없다. ‘덕분에’ 같은 캠페인도 한계가 있다. 그들에게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 역시 사이공간인 쉼이다.

건축가에게 있어서도 번아웃(burnout)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필자가 건축사보였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야근은 일상이요, 철야도 당연시되던 분위기였다. 하지만 필자는 아이를 키우던 엄마였기에 가급적 철야는 피하고 귀가했다. 아침에 출근해 보면 동료들은 철야근무로 모두 쓰러져 있는 상태였고 간밤에 해 놓은 작업을 검토해 보면 계산 등이 잘못 기입되어 있는 등의 오류들이 발견될 때가 많았다. 이러한 오류의 수정은 맑은 정신으로 출근한 필자의 몫이 되곤 했다. 동료들이 잠까지 반납하며 해낸 작업은 결코 그 노력만큼의 성과가 보장되지 않았던 것이다.

모든 생명체는 쉼이 필요하다. 특히 창작 작업을 하는 건축가에게는 더욱 더 사이공간 같은 휴식과 쉼이 필요하다. 배우들도 하나의 작품이 끝나면 자신이 맡았던 배역을 떠나보내기 위해 최소한 몇 개월씩 휴식의 시간을 갖는다. 이처럼 우리 건축가에게도 프로젝트와 프로젝트 사이에 반드시 비움의 시간으로서의 사이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온전한 창의력으로 무장하여 다음 프로젝트에 집중할 수가 있다. 또한 프로젝트 과정 중에도 잠깐씩의 작은 쉼이 필요하다.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도 붓을 놓고 잠시 떨어진 곳에서 자신의 작품을 보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가. 하느님께서도 천지창조 후 마지막 날에는 휴식을 취하셨다.

오랫동안 뇌와 행동 사이의 관계를 연구해 온 클라우디아 해먼드는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휴식의 결핍’이라고 지적했고, ‘휴식이 결핍되면 인생까지 피폐해진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렇다면 건축가는 어떻게 쉬어야 할까.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것은 여행이다. 지금과 같은 팬데믹 상황에서는 사실상 여행다운 여행을 하기 어려운 만큼, 평소에는 업무에 치여 산책 한번 하기 어려웠던 동네 공원에 나가 햇살을 받으며 걸어 보는 것도 좋겠다. 그러다가 햇살 좋은 벤치에 앉아 시집을 읽거나 생각 비우기를 하는 것도 추천한다. 전시나 공연 관람 등을 통하여 다른 장르의 예술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이며, 걷거나 트레킹 등을 통하여 자연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새해에는 온전한 나를 제대로 한번 만나보자. 삶의 사이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틈틈이 잊고 살았던 나를 찾아가는 시간을 가져 보자.

midas CAD

매주 수요일
유용하고 흥미로운 캐드자료 및 정보를
마이더스캐드 뉴스레터로 받아보세요!

건축칼럼

캐드팁

건축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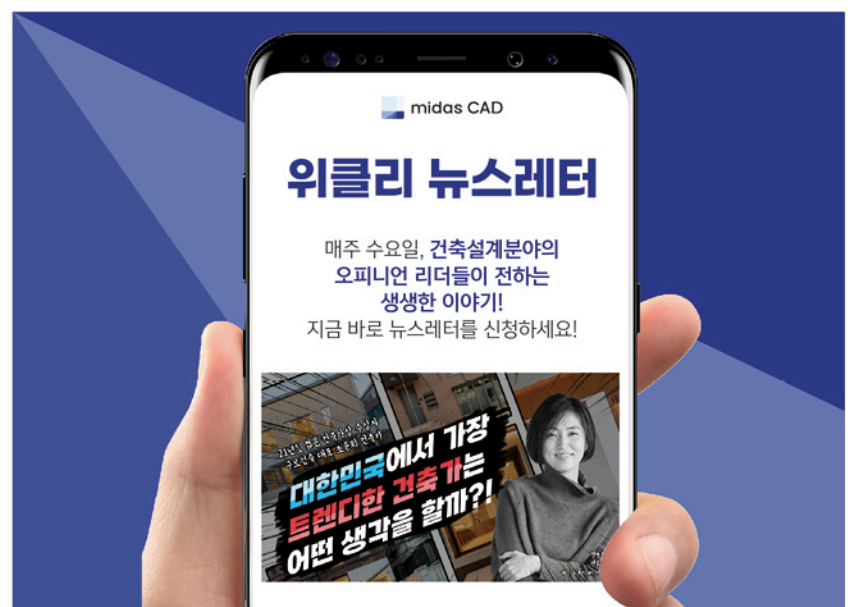
건축스팟

구독신청방법

1. 핸드폰 카메라를 우측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구독신청 페이지가 표시됩니다.
2. 구독 신청페이지 클릭 후 이름,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구독완료!



전화문의 | 1899-9260 홈페이지 | www.midasCAD.com



사랑에서 _ 여든다섯 번째

2022년 새해를 맞이하며...

새해가 밝았다. 새마음 새뜻을 다지는 해맞이 등의 각종 행사가 과거와 달리 없어지거나 축소되어서인지 모두 조용한 신년을 맞이하는 듯하다. 코로나 시국이 2년을 넘겨 계속되고 있어 행동에 제약을 많이 받다 보니 마음 또한 더욱 움츠러져 가고 있다. 하지만 치료제 상용화 소식과 백신의 광범위한 보급은 언젠가는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게 한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의 종식이든 위드 리빙 코로나가 되었던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야 할 때가 되었다. IMF 전후로 우리 건축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 세상은 이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거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디지털 대전환과 탄소중립의 시대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대전제가 우리에게 어떠한 노력을 요구할지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지만 새로운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 듯하다. 지난해 말에 몇몇 건축사들과 만나 차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냥 오랜만에 만나 서로 안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는 건축사들의 현실에 대한 무념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 내용을 간추려보면 땅에 떨어진 건축사의 위상과 건축사사무소 운영의 어려움이었다.

건축사라는 직업은 인간생활의 기본 조건인 의식주 중 주를 관장하는 직업이다. 건축물을 짓기 위한 대지를 구입할 때 건축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조언부터 설계, 시공, 준공, 유지관리 및 해체 멸실에 이르기까지 건축사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생로병사를 모두 관여하는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요성에 반해 건축사라는 직업은 대중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으면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가 되어있다. 책임에 상응하는 대가와 위상을 가져야 함에도 지금까지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또한 소형 건축사사무소는 인력수급이 매우 어렵다. 지방의 작은 건축사사무소는 잦은 야근과 박봉에 힘들다는 편견이 있어 신규직원 채용이 여간 어렵지 않다. 많은 건축학도가 있지만 교육과정 중 건축설계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거나 다른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 졸업 후 건축설계 분야로 진출하는 인원에 한계가 있으며 건축사시험제도의 변경에 따라 근속연수가 감소하게 된 것도 소규모 사무소의 신규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이유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발걸음을 주저할 순 없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가 우리를 더 강하게 할 것이고 새로운 변화가 기회를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본다. 이전과는 다른 좀 더 많은 노력과 열정을 요구할 수도 있고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선배들과 동료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혜를 모으고 같은 뜻을 모아 한목소리를 낸다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차근차근 대변혁의 시대를 대비해야 우리의 미래도 있다.

2022년 임인년에는 여러 모든 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 꼭 성취하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해 본다.

자문위원 _ 강동영 건축사(archikang@naver.com)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정인채, 한형민, 박진만
편집인 박종호
부편집인 박주현,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사재형, 정명환, 강동영
전담기자 곽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정관성, 양우현
편집위원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김영규, 이원규, 임태형, 정영진, 허만수, 설혜순, 오선화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후원방식 : 신협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건축사공제조합 1,000,000원

건축문화사랑 광고 및 구독신청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하단광고 : 350,000원
 •하단1/2광고 : 200,000원
 •구독료 : 20,000원/1년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협 131-009-471898

건축계 단신

건축사,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축사의 대한건축사협회 의무가입 법안이 담긴 건축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건축사법에는 건축사가 사무소를 개설하려면 대한건축사협회에 의무가입토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단일 협회에 건축사들이 의무가입토록 하는 것은 22년 만으로 변호사협회, 변리사협회, 감정평가사협회 등에 이어 네 번째 사례가 됐다. 의무가입은 1년 경과규정을 두기로 했다.

광주 고층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외벽붕괴'돼 부상자 및 실종자 발생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외벽이 무너지면서 부상자와 실종자가 발생했다.

작업자 2명은 잔해물이 떨어지면서 도로변 컨테이너에 갇혀 있다가 구조됐고 1명은 1층에서 공사를 하다가 잔해물에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다. 떨어진 구조물이 인근에 주차된 차들을 덮쳐 차량 10여 대도 매몰됐다.

또한 1월 12일 12시 현재까지 6명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시공사 등과 함께 현장 전체 작업자 394명(22개 업체)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들 6명은 건설 현장 주변에서 휴대전화 위치가 잡혔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들은 외벽과 구조물이 붕괴한 동의 28~31층에서 창호 공사 등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는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23~34층 양쪽 외벽 등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당국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이 무너지고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손상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오는 11월 준공 예정으로 지하 4층~지상 39층·8개동·아파트 705가구·오피스텔 142실로 총 847가구 규모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가현 www.welaw.co.kr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최정희

-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상속·이혼·후견)전문변호사
- 광주 인성고 졸업, 전남대 법대 및 대학원
- 사법연수원 35기, 대한민사법학회 감사
- 광주지방법원 법인파산관재인
-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
- 광주광역시 행정심판위원
- 광주 동구청 공직자윤리위원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 전남개발공사, 광주안과병원 자문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로85번길 11-9
 T . 062-236-0222
 F . 062-236-0608
 M. 010-3000-6028
 E . choi092@hanmail.net

BS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유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기초이엔씨(주)
 www.bs-base.co.kr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EcoSM 지반개량 · GeoCon 침하지반보강/복원
마이크로파일 · 팽이기초 · 로타리파일(헬리컬) · 강관압입파일



아크레타 첨단

김준철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코플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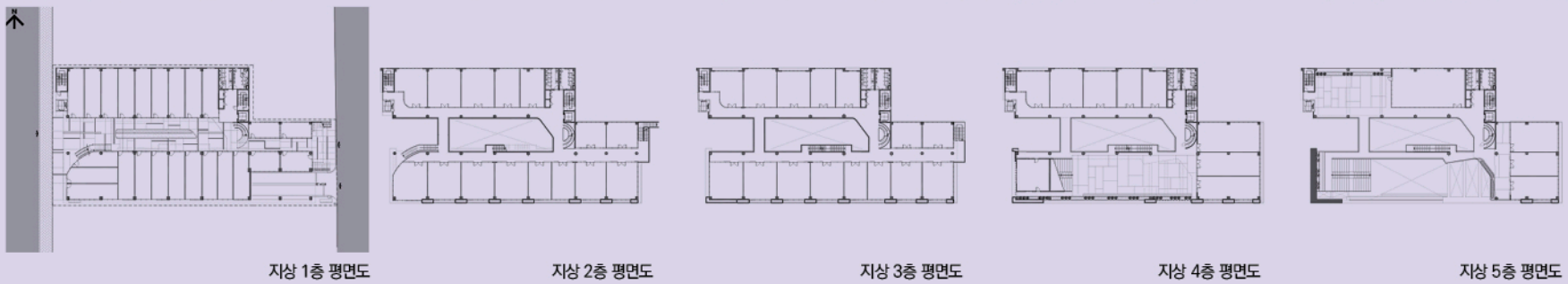
광주 서구 상무대로 721, 4층 401호
Tel. 062-385-0320

낙후된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도심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인가가 이 프로젝트의 시작이었다.

장소는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지는 전면과 후면의 도로에 접하고 있어 두 길의 연결을 통해 내부로의 동선을 유도하고, 그 흐름이 건물 내부 공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수평적, 수직적인 동선연결을 중점으로 계획하였다. 내부로 유입된 노출된 동선은 의도를 가지는 공간들과 만나게 된다. 중정, 개방된 복도, 옥상정원 등을 계획함으로써 다양한 공간감을 즐길 수 있게 되고 그곳에서 머물게 된다.

두 개로 분절된 파사드 매스와 따뜻한 경관조명은 가로의 답답함을 해소하고 활기를 만들어 내부 오픈스페이스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 통상의 폐쇄적인 동선체계를 가진 상업건물과는 달리 아크레타 첨단의 개방된 동선으로 내부 상업공간으로 연결되는 골목길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892-8 / 대지면적 : 2,197.4㎡ / 연면적 : 8,070.4㎡ / 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1층 평면도

지상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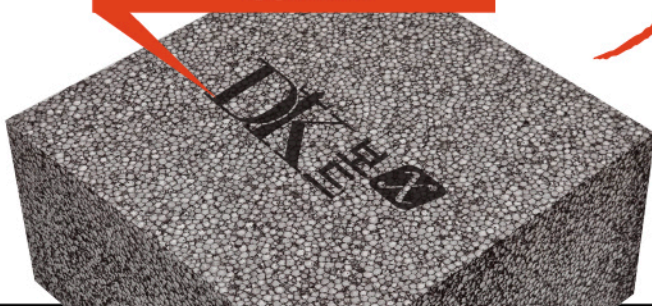
지상 3층 평면도

지상 4층 평면도

지상 5층 평면도

EPS 준불연 단열재

DK | 주디케이보드 × HDC 현대EP
공동연구개발



행명



준불연 EPS 단열재

DK본 X

DK보드X는 10여년에 걸친 준불연 EPS 개발 경험을 통해 차별화된 기술력과 노하우를 확보한 |주디케이보드가 심재시험방식으로 개정된 건축법에 맞춰 HDC현대EP 울산PS연구소와 공동개발한 새로운 준불연 단열재입니다.

준불연 단열재 DK보드

검색

DK

주대 광 판 널
주디케이보드

고객센터 1855-2240

광주건축사회, 광주광역시 남구에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 전달

지난 12월 14일 남구민 나눔의 날 행사 맞아, 어려운 이웃돕기 위한 기부 나서



광주건축사회(회장 정인채)는 지난 12월 14일 광주광역시 남구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은 광주광역시 남구청과 사랑의열매 주관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후원자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제8회 남구민 나눔의 날' 행사에서 진행됐다.

해당 행사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김병내 남구청장을 비롯하여 정인채 회장 등 여러 기부 단체 관계자와 후원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물품 및 성금 기부에 나선 이들과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자원봉사자들도 함께 했다.

정인채 회장은 "코로나19로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시기에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 바라는 마음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전문가 단체로서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 비롯 지역건축단체장, 이용섭 광주시장과 간담회 가져

지난 12월 10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건축 관련 개별심의 위원회 통합운영 등 건의



지난 12월 10일 광주광역시청에서 광주건축사회 정인채 회장과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신정철 회장을 비롯해 광주지역 건축·도시 관련 단체장들이 이용섭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광역시

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축·도시 업계의 의견을 듣고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정인채 회장은 건축관련 개별심의에 따른 인·허가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통합운영과 광주광역시 건축담당 부서 인·허가 제고를 위한 건축부서명 개정 등을 건의했다.

이용섭 시장은 "도시·건축계에서 광주 도시·건축 선언과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광주를 회색도시 이미지에서 탈피해 광주만의 도시공간이 조성되고 품격 높은 건축물이 많이 건립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건축·도시단체장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건축·도시 관련 산업을 포함해 여러 분야가 힘든 상황이지만 도시·건축계가 앞장서 코로나19 극복은 물론 광주 건축·도시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건축사회, 2022년 시무식 개최 및 장학금 전달식 진행

지난 1월 3일 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관내 5개 대학 추천 학생에...



광주건축사회는 지난 1월 3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회원 50여 명과 광주광역시 도시경관과 임동범 과장 및 시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임인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번 시무식은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2차 이상 백신 접종 회원에 한해 선착순 신청을 받아 진행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정인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3월 회장으로 취임하고 건

축사의 생존권 보장과 건축사 간의 소통확대, 건축사의 복지실현, 건축사의 자긍심을 대변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1년의 시간동안 기틀을 다졌다"고 밝히며, "남은 2년의 임기 중 올하는 그 목표를 실현하는 한 해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회사에 이어 전남대학교와 조선대, 광주대, 호남대, 송원대에서 추천받은 5명의 건축 관련 학과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우수직원 표창과 협회 업무 보고, 신년 떡 나눔 행사를 진행하고 시무식을 마무리 지었다.

광주 심상봉 건축사, 광주광역시 행정음부즈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지난 1월 7일 위촉식 가져... 임기 4년, 건축 관련 행정제도 부분 개선 기대



광주건축사회 제13대(2011년 3월 ~ 2013년 3월) 회장을 역임한 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SIM 심상봉 건축사가 광주광역시 행정음부즈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난 1월 7일 광주광역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위촉식에서 이용섭 시장이 심상봉 건축사를 비롯한 7명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행정음부즈만위원회는 공개채용을 통해 상임음부즈만 1명을 선정하고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건축사, 변호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 6명을 추천받아 총 7명으로 구성했다.

해당 위원들은 앞으로 임기 4년간 시민의 고충 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심상봉 건축사는 "앞으로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들의 고충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특히 건축전문가로서 건축행정 또한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건축사 회원들께서도 광주광역시 건축행정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불합리한 행정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공고 안내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모집 개요

- 공고기간 : 2022. 01. 10.(월) ~ 2022. 01. 25.(화) 16일간
- 모집분야 :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 신청기간 : 2022. 01. 26.(수) ~ 2022. 02. 04.(금) 10일간
- 신청방법 :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blcm.go.kr>) 신청
- ☎ 문의처 : 광주광역시청 도시경관과 기묘양 주무관(T. 062-613-4161)
- ※ 모집 공고문 및 자세한 사항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226500번 참조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주미주 건축사 / 다음 건축사사무소 / 광주 남구 효천2로가길 17, 3층 304호
- 임용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엘 / 광주 서구 경열로 124, 4층
- 조가영 건축사 / 지담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월계로 203, 2층 213호
- 박성욱 건축사 / 스퀘어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쌍촌로65번길 4, 201호

• 변경(소재지)

- 박항수 건축사 / 차오름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북문대로242번길 13, 동림푸른마을주공3단지아파트 2층 201호
- 유승희 건축사 / 원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매월2로15번길 16, 204동 212호
- 김한호 건축사 / 프랜 건축사사무소 /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6번로 57, 지식산업센터KBI하남 지식동 1207호
- 강연심 건축사 / (주)백두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67번길 1, 3~4층
- 박규상 건축사 / (주)백두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67번길 1, 3~4층

• 결혼

- 강성진 건축사 / 무진 건축사사무소 / 장녀 결혼 - 01월 08일(토)

• 부고

- 최인모 건축사 / 대영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12월 21일(화)
- 조은식 건축사 / 유에스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12월 30일(수)



일곡동 에덴빌딩
 범 정 건축사 / 범 건축사사무소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50-1, 2층
 Tel. 061-372-2587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869-1, 869-8번지 / 대지면적 : 412.10㎡ / 건축면적 : 236.05㎡ / 연면적 : 891.55㎡ / 건폐율 : 57.28%
 용적률 : 178.15% / 규모 : 지하 1층, 지상 4층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전남건축사회, 업무협약기관 통해 드론 조종자 국가자격취득과정 교육 진행
 지난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회원 및 회원사 직원 10여 명 수료



전남건축사회(회장 한형민)와 순천스카이드론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후 순천폴리텍대학과 연계하여 지역 기업 및 산업의 인력수요 맞춤형 교육훈련으로 실시한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드론) 조종자 국가자격취득과정에서 회원 및 회원사 직원 10여 명이 수료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회원 및 회원사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에 10여 명이 신청했으며, 미래의 건축분야에서 필수적으로 도입될 드론 응용기술에 대비한 드론 국가자격취득과정 교육이 진행됐다.

전남건축사회 관계자는 "올해에도 순천스카이드론교육원과 협의하여 드론 국가자격취득과정을 개설할 예정이고, 교육 개강 시점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여 교육생 모집을 공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여수지역건축사회, 여수시에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 기탁
 지난 12월 22일 여수시청에서... 저소득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여수지역건축사회(회장 김동식)는 지난 12월 2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정과 희망을 전하고자 성금 500만 원을 마련해 여수시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정 기

탁되어 관내 저소득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여수지역 건축사회 김동식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은 모든 시민의 건강과 생계를 위협하는 힘든 시간인 것 같다"며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하며, 초심의를 잃지 않고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한 관심과 후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이 시점에 여수지역 건축사회의 후원은 지역사회 곳곳에 훈훈함을 전파했다"면서 "소중한 성금은 회원분들 모두의 마음을 담아 연말연시 외롭고 힘든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잘 전달 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칭 EQ 합성보(진동, 응력 우수)

응력 크기, 진동 크기에 따른 CASE별 시공순서

- 건축구조 기술사회 기술인증서 획득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기술인증서 획득
- 관내(강구조, 건설사, 시행사) 누구나 사용 가능
- 무료 철골구조 경제성 검토

EQ공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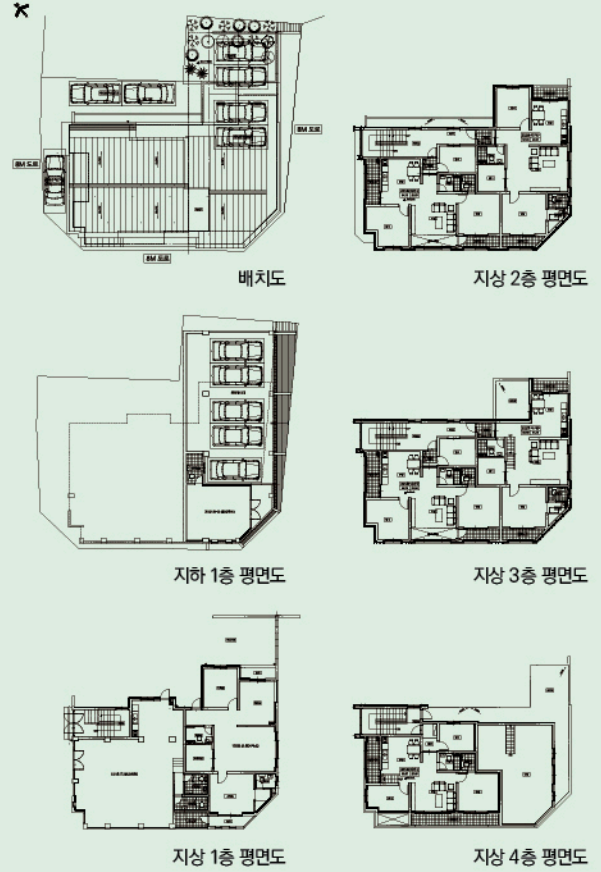
- ▶ 일반철골구조에 비해 진동성능이 우수 (최대 45% 향상)
- ▶ 철골 공사비 40% ~ 15% 절감
- ▶ 접합부 내진 성능 및 응력 크기 향상
- ▶ 불필요한 중간기둥 없이 무주공간 활용 (공간 활용성 우수)
- ▶ 주차타워, 상가, 물류창고 적용시 공간활용 극대화

문의전화 1666-5123



도심지 상가 및 주택가에 위치한 본 대지는 전면과 후면의 대지 레벨차를 이용하여 지하 주차 공간을 배치하여 대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종 세대별 공간구획을 통해 실용성 있는 평면 구성과 세대마다 채광 및 조망에 좋은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건축물의 외장은 다소 차갑게 느껴질 수 있는 징크와 콘크리트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자연스런 입면 디자인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전라남도,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 현장점검

지난 12월 9일부터 29일까지 진행... 자격대여 및 사무소 설치 중복 여부

전라남도는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29일까지 도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전라남도는 시·군 합동으로 건축시장의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자격대여, 사무소 중복개설)에 대해 건축사법 제30조(조사·보고) 등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사항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것이다.

이에 현장 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항에 대해 검토 후 행정조치를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전남건축사회 관계자는 “건축사법 위반행위로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건축사의 생존권과 명예까지 심각하게 실추되고 있음을 행정청에서 인식하고 현장점검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

지난 12월 20일부터 접수 진행... 70동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



목포시가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총사업비 2억 6천만 원을 투입해 주택·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

량 등 70동의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창고·축사로 지붕이나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운반·처리 등의 비용이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건축물 완전 철거 시에는 건축물대장 없이도 지원 가능하다.

주택은 최대 344만 원, 창고·축사는 면적 200㎡ 이하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취약계층에 한해서 동당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붕개량비가 지원되며 최대 지원금액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목포시 자원순환과(목포시 수문로 32, 트윈스타 4층)에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동 주민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취약계층을 최우선 대상으로 하며, 일반가구는 선착순으로 선정할 방침이며 올해 1월부터 선정 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슬레이트를 철거 및 처리할 계획이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자원순환과(061-270-8560)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 ‘2022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 접수 진행

오는 1월 20일까지 접수... 20세대 이상, 20세대 미만(준공 10년 경과) 공동주택 대상

광양시는 노후 공동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월 20일까지 ‘2022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신청서를 받는다.

‘2022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08개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20세대 미만으로 준공 10년 경과된 공동주택 85개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으로 나뉘어 추진한다.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총예산 10억 원으로 단지별 최대 3천만 원 내에서 노후화된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담장 등 주민공동시설과 부대·복리시설의 신설·보수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사업은 총예산 5억 원으로 단지별 최대 2천만 원 내에서 노후 담장, 주차장, 소방설비, 수도 배관 등 부대시설 보수 공사비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지원하지 않는 외부도색 공사와 방수공사 비용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사업 신청과 선정 절차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인으로부터 1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건축과에서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시는 현장 확인 후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시설 노후화, 사업 시급성 등을 반영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남 회원동정

•입회

- 김희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주안 / 전남 구례군 구례읍 구례로 454, 2층

•재입회

- 윤석호 건축사 / (주)디자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지석로 27, 2층

•전입

- 이 윤 건축사 / 이윤 건축사사무소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248번길 49, 2층

•변경(소재지)

- 하기성 건축사 / 아키탱 건축사사무소 / 전남 진도군 진도읍 옥주길 18

- 최현웅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루 / 전남 화순군 화순읍 훈리길 23, 1층

•부고

- 박금식 건축사 / 동도 건축사사무소 / 본인상 - 12월 15일(수)

- 황인주 건축사 / 그린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12월 16일(목)

- 김맹수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장 / 부인상 - 12월 25일(토)

- 박창권 건축사 / 씨에이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12월 26일(일)

전북건축사회, 건축인재 육성 위한 장학금 300만 원 전달

지난 12월 13일 건축 교육과정 운영하는 전주공고와 이리공고 학생 6명에게...



전북건축사회(회장 박진만)는 지난 12월 13일 건축 전문인으로서 사회적 책임 실천과 건축문화의 미래를 이끌어 갈 건축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해 장학생은 도내 고등학교 중 건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전주공업고등학교와 이리공업고등학교에서 추천받은 6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50만 원씩 전달되었다.

건축인재 육성 장학사업 2년 차를 맞는 전북건축사회는 코로나19 위기극복

을 위한 이웃돕기성금 1,000만 원을 지난 1월 18일 전라북도에 전달한 바 있으며, 2020년에는 수해복구를 위한 성금 기탁과 무료설계 지원 등 매년 도내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박진만 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를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관심을 갖고,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물론 자연과 건축이 공존하는 생태건축을 통해 생태문명을 선도하고 지역 건축문화 창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지역건축사회,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 상당 물품 기탁

지난 12월 22일 덕진구청 방문하여 임실치즈선물세트 전달

전주지역건축사회(회장 이성열)는 지난 12월 22일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장변호)를 방문하여 관내 저소득 세대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사용해 달라며 임실치즈선물세트 150세트를 전달했다.

전주지역건축사회는 매년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과 다양한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선뜻 기부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또한 완산구에 성금을 꾸준히 기탁, 올해는 덕진구까지 500만 원 상당의 치즈세트를 지원하는 등 나눔활동을 추진했다.



이성열 회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더욱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 바라는 마음으로 치즈세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역사회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장변호 덕진구청장은 “꾸준한 이웃사랑 실천이 쉬운 일이 아닌데 덕진구 저소득층을 위한 나눔활동을 실천해 주신 전주지역건축사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후원된 물품은 관내 저소득 가정에 어려움을 이기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대, '2021년도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료식 및 전시회 개최

지난 12월 18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건축사와 예비건축사 40명 수료



전북대학교 한옥기술종합센터(센터장 남해경 교수)는 지난 12월 18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2021년도 한옥설계 전문인력 양성사업' 수료식과 작품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료식에는 전북대학교 김동원 총장을 대신해 이재백 부총장을 비롯하여 전북건축사회 박진만 회장, 국토부 담당자, 전라북도청 건축 담당자 등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가 유행인 관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진행했다.

해당 과정은 지난 7월부터 기초반 25명과 심화반 15명으로 구분하여 매주 토요일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한옥에 관한 이론과 설계실습, 시공실습, 답사, 발표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1주일간 진행된 작품전시회는 해당 과정을 수료한 교육생들의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눈꽃내 문화의 집

이재현 건축사 / 상상디자인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정승배기로 365, 2층 201호 / Tel. 063-253-0241



대지위치 : 전라북도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888-8번지 외 1필지 / 대지면적 : 3,964㎡ / 건축면적 : 673.23㎡ / 연면적 : 666.24㎡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주요마감 : 노출콘크리트, 내후성강판, 갈라복층유리

수료식에는 건축사와 예비건축사 40명이 수료하였으며 이어진 시상식에서 국토부장관상에는 이재걸 건축사(마고 건축), 전라북도지사상에는 김동현 건축사(그라운드 건축), 김슬비 건축사(빙글 건축), 박삼호 건축사(석진스톤 건축), 노경호 건축사(효성중공업 건축)가 수상하였다. 이외에 전북대학교총장상, 전북건축사회회장상 등의 시상이 있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초창기에 이 과정의 교육을 받았던 (사)한옥연사업단의 김동인 대표가 작품전시회에 전시한 작품 중에서 우수한 작품 3점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특별한 행사도 가졌다.

김동인 대표는 '앞으로도 이 과정을 이수하는 교육생 중에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계속 표창하겠다'고 약속하며 자리를 빛내 주었다.

한편, 해당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건축 전문가인 건축사와 예비건축사를 대상으로 '한옥설계교육'을 6개월 동안 실시하는데 교육비는 전액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전북대학교는 한옥기술종합센터는 이 교육이 시작된 2011년부터 유일하게 전부 시행하는 영예를 안기도 하였다. 그동안 전북대학교는 이전에 실시한 교육과정에서 연속 최우수 교육기관에 선정된 바 있으며 기초반과 더불어 심화반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대, 한옥의 세계화를 위한 노력 결실로 나타나

지난 12월 9일 베트남에 수출하는 한옥부재 선적... 알제리, 미국 등에도 추진 중



전북대 한옥기술종합센터가 그동안 한옥의 세계화를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결과 빛을 보기 시작했다. 전북대는 지난 12월 9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한옥부재를 선적하여 현재 해상을 통하여 운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전북대는 베트남 쿤논시에 건축될 한옥정자와 홍보관에 필요한 기둥과 대들보, 연목, 기와, 초석 등을 선적한 것이다. 이들 부재는 고창캠퍼스에서 치목하여 컨테이너 박스 3개에 나눠 실은 다음 운반하고 있다.

이후 1개월 정도 이동한 다음 2월에 현지에서 조립하고 3월에 준공식을 거행한다. 이번에 선적된 부재는 1차로 한옥 정자건축에 사용되는 부재로 약 40톤 정도이다. 이번 한옥건축을 시작으로 전북대는 베트남에 전통 정자, 홍보관,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10여 년에 걸쳐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이번 수출과정에서 목부재의 장시간 운송에 따르는 보관상의 문제, 목부재 변형의 문제, 해충 피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재 보관방법, 훈증기법, 포장

기법 등의 연구를 별도로 수행하여 한옥 수출에 따르는 부차적인 연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주목받고 있다.

그간 전북대에서는 알제리, 베트남, 미국 등과 MOU를 맺고 현지 사정을 반영하여 도면을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치목하여 왔다. 현재 알제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제작은 완료되었으나 운송을 기다리는 상태이고, 미국 한옥마을 수출은 4월에 선적하기로 하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운반에 따르는 운송비의 문제와 경제성 향상 등을 위하여 현지 재료 조달방법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 캐나다,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 등과도 한옥 수출을 협의하고 있어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해경 센터장은 "전북대는 고창캠퍼스를 중심으로 앞으로도 활발한 한옥교육과 생산에 관심을 기울여 K-HOUSING 문화를 세계에 전파하고 싶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이를 계기로 이번에 산업체에 근무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옥건축학과'를 우리나라 최초로 신설하여 올해 3월부터 정식으로 학생모집을 하고 교육을 실시한다. 그러면서 학부과정의 한옥건축학과와 기존에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의 한옥학과와 연계하여 교육과 연구, 산학 활동에 더욱 많은 활동을 기대하고 있다.

전북 회원동정

•입회

- 김미화 건축사 / 담돌 건축사사무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성산5길 9, 1층
- 김성남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로운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9, 615호
- 최영철 건축사 / 온유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77, 2층

•전입

- 허영재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다함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167-14

•변경(사무소명&소재지)

- 이두필 건축사 / (주)두산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4길 10, 3층

•변경(소재지)

- 강미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예감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5길 10, 2층
- 이영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세원건축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06, 2층
- 유철갑 건축사 / A+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06, 2층
- 서민기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에이드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우림로 1033
- 고시곤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플라넷 / 전북 군산시 검다메1길 16-5
- 송주창 건축사 / 하람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오공로 120, 101호
- 김우철 건축사 / 예감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5길 10, 2층

•부고

- 오영철 건축사 / 신영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01월 03일(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국토, 청정자연·관광·문화로 행복한 무주에는 마을로 가는 축제가 있다. 이렇듯 눈과 마음이 정화되는 설천면의 눈꽃내 문화의 집은 마을 거점시설로서 사람과 문화와 자연의 Hub, 설천(雪川)을 Concept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현재 면사무소의 복지 기능의 제약과 공동체 활동 및 거점 역할 시설 부족, 중심지-배후마을 주민들의 높은 복지 수요에 응답해야 했다. 설천면의 "중심지 기능 회복"을 위한 이 프로젝트는 "유기적 공간" 조성을 통해 문화복지 융복합 HUB SPACE로 제안되었다.

무주와 정기용 선생을 기억하며, 감응의 건축, 감응의 풍경 그리고 오래된 미래를 위하여...



제22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 세부 개요는 2021년 11월호에 게재됨



대지위치 : 전라북도 남원시 쌍교동 260번지 외 일대(광한루 주변) / 대지면적 : 3,165㎡ / 건축면적 : 272.34㎡ / 연면적 : 435.60㎡ / 규모 : 지상 3층
 주용도 : 문화 및 집회시설(체협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공중화장실) / 구조 : 목구조 / 주요 마감 : 목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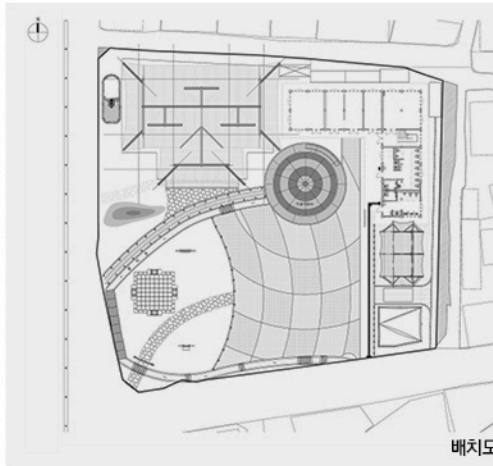
금상(사용승인 공공 분야) '화인당'

설계자 : 최미선 건축사 / MS 건축사사무소

광한루원 동문 일원의 침체된 장소를 관광객과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의 구축과 함께, 기존 물레방아 갤러리 주변 개발을 통해 상호 연계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리산 유람이라는 컨셉에 맞게 '화인당 해우소'는 남원의 대표 돌레길 및 길을 따라 떠나는 여행이라는 테마를 화장실 타일에 담아 남원의 길문화를 표현했다.

제22회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공모'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대지위치 : 전라북도 김제시 공덕면 동계1길 139 / 대지면적 : 660㎡ / 건축면적 : 129.96㎡ / 연면적 : 129.38㎡ / 건폐율 : 19.69% / 용적률 : 19.60%
 규모 : 지상 1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구조

금상(사용승인 일반 분야(주거)) '화담별서'

설계자 : 최정인 건축사 / 일상 건축사사무소

게스트룸 전면에 설치한 뒷마루는 사람이 머물고, 햇살이 드리우고, 바람이 지나는 화담별서의 첫인상이 된다. 거실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게스트룸 매스로 인해 작업공간을 가려주어 마당의 조경과 담장 너머로 펼쳐진 시골의 고즈넉한 풍경을 온전히 누리게 해준다. 게스트룸은 아들들을 위한 공간이자 손님을 맞이하는 공간으로 거실에서 조금 더 거리를 두고자 했다. 한옥의 사랑채와 같다.

시골 마을에 들어서는 집이 제 모습을 드러내기 보단 주변과 조화롭게 바랐다. 심플한 매스, 매스의 분절, 간결한 사선 지붕으로 이루어진 주택이다.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원동로 16 / 대지면적 : 4,878㎡ / 건축면적 : 859.968㎡ / 연면적 : 1,838.094㎡
 규모 : 지하 1층, 지상 2층 / 주용도 : 제1·2종 근린생활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주요 마감 : 노출콘크리트, 단열커튼월 + 24MM 로이복층유리

금상(사용승인 일반 분야(비주거)) '디오니'

설계자 : 정상민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현즈

디오니의 건축적 키워드는 동선, 중첩, 시퀀스, 인스타 그래머블이다. 기존의 언덕 라인을 살리고 그 연장선에 2층과 연결되는 잔디광장을 두었다. 언덕의 오르막을 지나면 건물의 오르막 곡선을 만나며 공간 전체의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크게 하나의 매스이면서 언덕에 묻혀있는 건물의 형상을 느낄 수 있다.

다양한 동선의 접근을 통해 마치 두 개의 건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다양한 진입과 연결을 가진다. 공간의 변화적 시퀀스는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즐기는 이색적 공간이 되어주는데 이러한 공간의 기획은 요즘 하나의 문화가 된 SNS를 통해 보여주는 문화적 생활방식에 맞는 건축이 되었으면 했기 때문이다.



책 소개 _ 정가원 학생기자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에이트’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이지성 저 / 차이정원 / 2019. 10. 21.

과거에는 너무 멀게 느껴지며 SF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였던 인공지능은 벌써 우리 곁에 당연하다는 듯이 함께 하게 되었다. 인간형 감정 지능 로봇 ‘소피아’를 개발한 헨슨 로보틱스의 설립자 데이비드 헨슨은 인공지능의 미래를 이렇게 예측했다. “인공지능 로봇은 2035년에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앞지르게 되고, 2045년에 인간과 동일한 시민권을 갖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좋은 기능을 제공하며 편리함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한편으로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빠르게 발전해가는 기술 속에 그저 머무르며 바뀌는 세상에서 우왕좌왕할 것인가 아니면 인공지능을 통제할 힘을 기를 것인가?

이번에 소개할 책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에이트’라는 책이다. 많은 인공지능에 관련된 책들이 있지만, 이 책은 인공지능의 무서움이나 기술력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 ‘인공지능 시대에 나는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 나온다.

2016년 세계로봇연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로봇의 인간 대체 비율이 세계 1위인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한다. 이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공지능의 편리함만 생각하고 정작 자신의 직종에 위협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잊고 있다.

책을 읽다가 흥미로웠던 부분은 미래 인류 사회는 ‘인공지능에게 지시를 내리는 계급’과 ‘인공지능의 지시를 받는 계급’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미래의 나는 전자에 해당할까 후자에 해당할까?

이 책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대해 내가 앞으로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과 태도,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나’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주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추천하고 싶다.

세상사는 느낌 _ 진다엘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삶 속에서 나만의 재미를 찾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삶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사람들 간의 모임도, 열정적인 콘서트도, 여유를 찾아 떠나는 여행까지, 이제는 전부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재미를 찾을 수 있을까?

이 물음에는 명확한 답이 없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다시 익숙해져 살아갈 뿐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재미를 찾는 이유는 지루한 일상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때문일 것이다. 사실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이러한 마음은 모두 가지고 있었겠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이는 사치라고 여겼을 것이다. 그런데 삶의 제약으로 인해 그 마음이 더 커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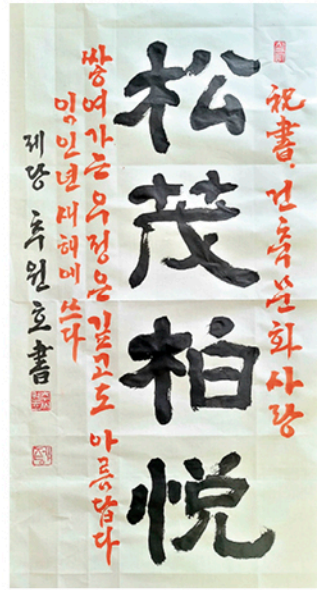
나는 처음에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누구보다 늘 바쁜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며 끊임없이 달려왔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도, 공모전 참가도, 장기 스터디 모임도 전부 멈출 수밖에 없었다. 그로인한 시간적 공백과 끊긴 사람 간의 공유는 몸과 마음을 흔들어놓았다. 오히려 외출을 자제하니 몸이 아팠고, 평상시에 크게 떠올리지 않았던 걱정거리들과 온갖 잡생각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어영부영 학교생활을 하면서 2년이 지나가는 무렵, 나는 마음을 조금씩 고쳐먹게 되었다. 이 상황에 그저 익숙해지기보다는 또 다른 재미를 찾아 나서는 것이 나를 되돌리는 길일 것이라고. 오히려 누군가와 만남이 제약받는 이 일상 속에서, 내가 나만의 행복을 직접 찾아 볼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라고.

원래 나의 오랜 꿈이자 취미였던 피아노 연주를 다시 시작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학교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갔다.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니 스트레스도 풀리고, 학교 전공 과제인 설계에도 영감을 받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쁜 공예품도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며 취미 생활을 다시 시작해보니, 부정적이었던 코로나19가 나만의 시간을 충전해주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우리 모두 답답하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견딜만한 자신만의 삶의 여유를 찾을 좋은 기회를 얻길 바란다.

신년하례



濟堂 추원호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아킴

K비대면바우처 새해대박! 최대 280만원지원

문의 02 3462 1336
이기상 건축사직통 010-8276-6158
더 알아보기 www.arkim.kr

놓치면 후회!!

앱 하나로
모든 감리서류!!

5인 동시사용

비상주
상주
해체
석면까지

PDF
도면 업로드
마크업